

# 외국인·기관 매물 받아낸 개미, 올 9.5조 '역대급 순매수'

개미들, 삼성전자·셀트리온 등 상반기 통큰 베풀기로 수익 얻어 신용거래용자 2주간 6% 감소 등 하반기 개미 순매수세 위축 전망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9조원 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반기 순매수액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종 정치·경제적 여건으로 하반기 증시가 불확실성한 데다 개인의 신용거래용자 잔고와 대차잔고가 이미 급감하고 있어서다.

1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9조5204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피시장에서 7조232억원, 코스닥시장에서는 2조2872억원 어치를 각각 쓸어담았다. 반면 기관은 4조4072억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외국인은 4조536억원 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개인의 주식 순매수액은 거래소와 코스콤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2000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종전까지 개인이 가장 크게 지갑을 연 때는 2007년 하반기(5조2492억원)였고 2009년 상반기(4조2943억원), 2011년 상반기(3조8394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미들은 올 상반기 250만원대에서 5만원대 주식으로 액면분할한 삼성전자(6조5625억원)를 가장 많이 쓸어담았다. 또 셀트리온(1조234억원)을 비롯해 현대건설(6512억원), 현대로템(5796억원) 등

남북경협주에도 통큰 베풀기로 수익을 냈다.

실제 개인들이 많이 산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올해 상반기 평균 11.65% 올라 기관(8.86%)과 외국인(7.19%)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개인의 순매수세는 다소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신용거래용자는 지난 달 12일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줄곧 하락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8일까지 집계된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1조8882억원이

다. 지난 4월 19일 이후 12조원대를 줄곧 유지했지만 코스피가 연 저점까지 추락하자 두 달만에 11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달 12일(12조 6479억원)과 비교하면 2주간 6.0% 하락했다.

신용거래용자란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 투자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때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 신용거래용자가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주가 상승을 예측하는 투자자의 수가 감소했다는 뜻이다. 또 주가 하락이 예상돼 서둘러 신용융자를 상환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 대차거래 잔고도 급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9일까지 집계된 대차거래 잔고는 73조4258억원이다. 최근 한 달 간 80조원 대를 유지했으나 지수 하락과 함께 꾸준히 하락세다.

대차거래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가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을 내는 거래방법이다. 이를바 '공매도'다. 때문에 대차거래 잔고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가 줄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지금

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가 바다를 예상한 단기 투자자들이 대차주식 상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증권업계에서는 하반기 증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한 달동안에만 4% 넘게 하락했다. 미·중 무역갈등, 국내 상장사 실적 컨센서스(기대) 감소 등이 이유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국내 상장사 자기본 영업이익률(ROE)은 기존 시장 추정치인 11.4%보다 낮은 10.4% 수준을 예상했다. 미국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신흥국 경기둔화가 심화되면 올해 ROE는 작년 10.5%보다 크게 낮은 9% 후반 ~10%선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둔화 등의 악재가 주식시장에 계속 영향을 준다면 ROE 추가 하향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며 "2018년 코스피 예상 벤드 상단을 2900에서 2800으로 하향하고, 중국과 신흥국 경기둔화가 현실화된다면 상단을 2700선까지 내려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비수기 없는 여름… 전국 6548가구 봇물

### 분양캘린더

수도권 3963가구 청약접수

7월 첫째 주엔 본격 여름 분양시장이 열린다. 분양 비성수기로 분류되는 여름이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물량이 풀리면서 분양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16곳에서 총 6548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3963가구 가주인을 찾는다.

현대건설은 오는 5일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54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신촌'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39~84m<sup>2</sup> 총 503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전용면적 59~84m<sup>2</sup> 총 34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5개 단지에서 연다.

/채신화 기자 csh9101@

HDC현대산업개발도 같은 날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281-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여주 아이파크'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전용면적 84m<sup>2</sup>, 총 526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내 Ab-22블록에 들어서는 '김포강 롯데캐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9층, 32개 동, 전용면적 67~84m<sup>2</sup> 912가구로 조성된다.

지방에서는 총 2585가구가 풀린다.

동원개발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1가 2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동대신역 비스타동원'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39~84m<sup>2</sup> 총 503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전용면적 59~84m<sup>2</sup> 총 34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5개 단지에서 연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수입 대두값 급락… 美·中 무역분쟁 수혜주

### 株라큘라의 종목

#### 사조해표

대두 풍작… 가격 10% 하락 등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이를 것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나타내고 있다. 하반기에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립리서치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1일 사조해표에 대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이 실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조해표는 해외에서 수입한 대두를 가공, 정제해 식용유를 생산하는 업체다. 원재료인 대두와 유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국의 작물 현황이나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 연구원은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제 대두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만큼 환율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희석될 것"이라고

#### 사조해표 연도별 영업실적 추이



분석했다.

실제 국제 대두가격은 작황 풍작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국제 대두가격은 부셸(bushel) 당 1037.6센트에서 지난달에는 939.6센트로 10% 가까이 떨어진 상태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최근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면 중국의 수입물량이 크게 감소하며, 공급과잉 탓에 국제 대두가격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특히 하반기에는 환율이 안정되며 사조해표의 실적은 턴어라운드

를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원화강세 요인이 전재하기 때문이다.

매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대두박 사업부문 역시 전망이 밝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과 조류 독감 등으로 위축됐던 축산 시장이 회복세에 진입하며 사료 수요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사조해표는 대두에서 식용유를 정제하고 남은 대두박을 사료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며 "국내 대두박 공급의 25~30% 가량을 담당하고 있어 축산업 호황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사조해표에 대해 '긍정적'인 주가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2만10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95.3% 가량 상승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영업측면과 별도로 자산가치 부각에 따른 재평가도 기대된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사조해표의 현금성 자산은 142억원이며, 사조대림 등 관계자분을 포함해 현금화가 쉬운 자산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시가총액은 770억원 규모여서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다.

/손엄지 기자

## 美·中 무역분쟁에 주식형펀드 하락세

### 주간펀드 동향

해외 신흥 아시아펀드도 약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과 순자산이 모두 하락했다. 해외 주식형에서도 신흥 아시아지역 펀드가 약세를 보였다.

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주(6월22일~28일)간 종국 상무부가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모든 조치를 통해 반격할 것이라 경고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전주 대비 1.01% 하락한 2314.24에 장을 마감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1.25% 하락한 2079.62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

## NH투자증권, 주택도시기금운용본부 신설

대표이사 직속… 강현철 본부장 선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전담 선정 조치

NH투자증권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주택도시기금운용본부를 신설하고, 강현철 본부장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전담 운용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과 선정 기준 등을 고려해 본부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뒀으며 산하에는 다른 부서와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자 자산배분, 운용, 성과, 평가와 위험관리 등을 담당하는 4개 부서를 설치했다.

강현철 신임 주택도시기금운용본부장은 "전담 운용 기관 선정을 계기로 기존의

차별적 강점이던 다양한 상품 발굴능력에 대규모 자금 운용의 경험에 축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자금의 전담 운용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42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중 연기금투자풀 자금 5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절반 정도(18조~19조원)씩 나눠 이날부터 4년간 운용하게 된다.

/김문호 기자 kmh@